

남도의 '마을 지킴이' 장승을 되새기다

'한국의 바위문화-전라남도'

김주영 사진작가 기획전 개최
예술이뽁그라운드서 28일까지
검오일 프린트 사진 135점 선봬
8년간 촬영한 장승·마애불·미륵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난국의 시대, 마을의 액을 물리치고 만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승들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 동구 예술이뽁그라운드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김주영 사진작가 기획초대전 '한국의 바위문화-전라남도'는 지난 8년간 전국의 바위 문화재를 답사하며 기록한 작품 중 광주시와 전남도 18개 시군에서 촬영한 135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 전시는 김 작가가 마애불, 미륵, 벽수, 장승, 집대 등의 바위 문화를 계승하고자 추진한 '한국 바위 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시작들은 검오일 프린트 방식으로 인화했다.

검오일 프린트는 1989년 미국의 칼 케니히(Karl Koenig)에 의해 발견된 동시대 회화주의 대안 프린트 기법이다. 검오



13일 김주영 사진작가 기획초대전 '한국의 바위문화-전라남도'가 열리고 있는 광주 동구 예술이뽁그라운드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당금 예술이뽁그라운드 대표가 한 돌장승의 일화를 설명하고 있다.

일 프린트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지금은 이 방식으로 프린트를 하는 사진가는 김 작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김 작가는 2016년부터 전국의 바위 문화재를 찾아 나섰다. 전통 신앙의 흔적을 사진으로 기록해 후대에 남기겠다는 다짐에서 시작해 화강암으로 조각된 장승, 마을을 수호하는 미륵, 절터에 남은 마애불까지 산속 깊은 곳과 폐가로 뒤덮인 마을을 누비며 현장을 포착해 왔다.

13일 찾은 전시 현장에 걸린 사진 한 점 한 점에는 각기 다른 배경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마을 주민조차 존재를 모르는 비지정 문화재, 군사 통제구역 안에 갇힌 장승, 3시간을 헤매며 모기와 가시덤불을 뚫고 찾아낸 장군바위, 폐가에 갇힌 미륵 등 각종 약조건을 뚫고 촬영해 낸 바위 문화재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가슴 아픈 사연이 깃든 진도군에 새로 조성된 장성한 쌍이다.

진도군 근내면 덕병리 덕병마을 북서쪽 용인 마을과 이어지는 '진산포들'에 화강암으로 만든 한 쌍의 바위 장성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서 있다. 2미터가 넘는 높이의 서쪽 남성상 '대장군', 동쪽 여성상 '진제등'이다. 이 두 장성의 원작은 1989년 도난당했다고 한다. 당시 주민들은 한 쌍의 장성을 찾고자 전국을 헤매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해 1993년 새로 조성된 장성이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김 작가는 답사를 통해 이미 사라져 존재조차 알 길 없는 바위 문화들과 시대의 팍박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묵묵히 제자리에 서 있는 돌장승들을 조우하게 됐다.

이 밖에도 이번 전시와 함께 출간된 전자도록 '남도 지킴이'에서 100점의 사진과 작가의 해설을 만날 수 있다. 벽수, 장승, 미륵, 마애불 등 7개 카테고리별 특색과 마을 주민의 구전 명칭을

반영한 설명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당금 예술이뽁그라운드 대표는 "정국의 혼란 속 국민들을 위한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시기, 과거 백성들의 마을을 지키던 장승들을 조명하는 전시가 시의적절하게 마련됐다"며 "경제와 기술 발전 속 사람 중심의 사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사람의 중요성을 '마을 지킴이' 장승을 통해 사유하고 상기하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인 거 같아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찬기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역서 활동할 국립 청년예술단체 4개 신설할 것"

13일 청년교육단원 심사현장 방문 "도전정신" 강조...예술 지망생 격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체를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심사'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에서 활동할 연극, 전통무용, 전통연희, 오케스트라 등 4개의 국립 청년예술단체를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설될 국립 청년예술단체는 문체부가 시행 중인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출신 예술가들로 채울 계획이다.

유 장관은 "지나해 선발된 청년교육단원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해 단체를 만들겠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술 지망생들이 안정된 직장처럼 월급 받고 다니는 예술가보다 지속 경쟁하고 성장해 완성된 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N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 교육단원 통합심사 현장을 찾아 심사위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의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청년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 4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국립 청년예술단체 단원들을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 경력을 쌓기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에게 국립단체의 무대 경험을 제공

해 차세대 K-컬처 주자를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9개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350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545명을 선발해 단체별로 다양한 실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심사는 서울과 부산, 남원에서 24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다음달 4일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narts.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찬 기자

'오월문학' 세계 문학계서 가능성 전망하는 워크숍 열린다

20일 전일빌딩245 4층서 전문가·시민 참여해 토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오월문학이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5·18 사적지에서 뜻깊은 문학 워크숍이 열린다.

13일 오월문예연구소에 따르면 '세계문학의 가능성으로서 오월문학'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에서 개최된다.

토론은 △문학평론가인 김형중 조선대 교수의 모두 발제 '역사의 역사 - 루카치, 제임스, 임철우, 한강, 그리고 오월소설' △문학사연구가 이승철 시인의 '오월문학 총서'를 통해서 본 오월문학의 흐름과 전망 △문학평론가 정민구 전남대 교수의 '시는 여전히 물음이 될 수 있을까' △문학평론가 김영삼의 '절대 신화 너머의 자리, 포스트-광주' 순서로 주제 발제가 진행된 뒤 참가자들의 질의 토론이 이어진다.

조진태 오월문예연구소 소장은 이번 위

크숍을 통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함께 더욱 주목받는 그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의 문학적 성취를 되새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소장은 "이번 워크숍은 1980년 이후 한국문학의 주된 흐름을 형성해 온 오월문학의 문학사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아울러 오월문학이 세계문학에서 갖추게 될 위상과 다양한 전망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5·18의 도시 광주가 '책과 문학의 도시 광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사전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오월문예연구소는 지난 2015년 광주·전남작가회의 부설로 설립된 뒤 독립한 기관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연구 및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이 되는 2030년을 전환적 목표로 정해 오월문학을 중심으로 담론 형성과 창·제작에 대한 연구 토론 등 사업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찬 기자

"전남 동부 산림 문화 체험·교육 아우른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

광양 백운산 산림박물관 개관식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산림 문화 공간을 목표로 조성된 광양 백운산 산림박

물관이 13일 개관했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

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물관 개관식이 개최됐다.

백운산 산림박물관은 숲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곳으로 백운산에서

수집한 식물 574종 중 희귀도 등을 고려해 20종의 표본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박물관 내부는 △숲의 공익적 기능을 소개하는 '숲은 사라져요' △들꽃 정보와 가상 현실(VR) 체험을 할 수 있는 '숲은 소중한데요' △대형 스크린으로 백운산의 자연을 감상하는 '숲과 함께해요' 등 3개

전시실을 갖췄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에 개관한 광양 백운산 산림박물관은 동부권 산림 문화 체험과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더불어 광양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